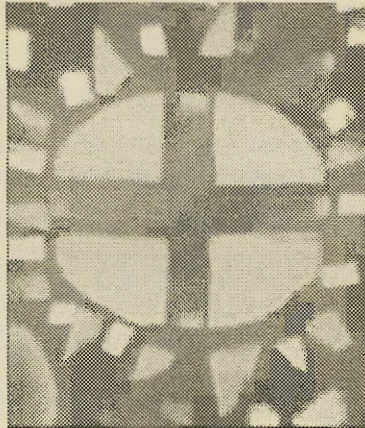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5주일(성모 성월)
제30권 23호(다해) 2010 · 5 · 2

[묵상]



예수 성심

이남규
1978년, 유리화,
전주 노송동성당

당신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도 서로 사랑하렵니다.
당신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당신처럼 사랑함에 있사오니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당신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렵니다.

하오나 주님!
너무 힘듭니다.
당신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저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힘듭니다.

삶의 여정 속에 만나게 되는
고단함과 무거움이
저희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께서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해야함이
당신이 지고 따르라고 하신
저희들이 지고 가야할
진정한 십자가이옵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사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오전 오후	2:00 10: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오후	6:00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 - 대학부 (PACEM)	오전 중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1:00 1:00 2:30 9:00 1:00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박준구 요한
	(생)조지 가보라, 유은상 안젤로, 남아고보&정선 안젤라 김풍길 바오로&재희 모니카 가정, 이장환 마르미노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박준구 요한, 이금순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정요임 안나, 김종환 야고보, 엄은섭 도로테오, 변세연 대전 안드레아
	(생)오세원 아타나시오&루시아 가정, 박순자 테레사 &이종무 바오로, 김범중 안토니오&김은정크리스티나, 김성택 프란치스코, 김영길 안드레아, 오창배, 김연자 아가다, 최석원 클레멘스,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가정, 이근모 마리노 & 행자 리드비나, 홍숙자 막달레나, 신중신 다니엘 & 이영애 켈마 가정, 윤대옥 다니엘 & 신아람 율리아나, 65차 ME 첫주말 수료자들, 토런스 서1반 가정들, 문밖티스타 수녀, 이장환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14,21-27
화답송	◎내 하느님, 임금님, 기리오리다. 영원토록 당신 이름 기리오리다. <전례성가 73, 부활 제5주일 다혜> ◎주님은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억경에 더디시고 사랑이 지극하오이다.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어여뵈 여기시나이다.◎ ◎일체 당신의 조물들이, 주여, 당신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당신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당신나라 영광을 들어 말하며, 당신의 능하심을 일컬으게 하소서.◎ ◎당신의 장하신 일, 사람마다 아옵고, 당신 나라 찬란한 영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무궁하리이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21,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음	요한(John) 13,31-33,34-35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9	162
봉헌	327	268,269
성체	283	287,302
파견	394	327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의 얼굴에서 빛난다

왜 생명은 선한 것일까? 성서 곳곳에서 이 질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첫 지면에서부터 이 질문에 대한 강렬하고 놀라운 대답이 주어진다. 인간은 비록 진흙으로 빚어졌지만(창세 2,7; 3,19; 욥 34,15; 시편 103,14; 104,29)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거하는 존재이고,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표징이며, 그분 영광의 흔적이다.(창세 1,26-27; 시편 8,6 참조)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주신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 이레네오가 그분의 유명한 정의(定義) 안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간, 즉 살아있는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그와 창조주를 결합시켜 주는 긴밀한 유대에 근거한 고결한 품위를 부여받았다. 하느님 당신의 영광이 인간 안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다.

창세기가 첫 창조의 이야기 안에서 인간을 하느님 창조행위의 정상에, 무질서한 혼돈으로부터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피조물로 나아가는 과정의 최고점에, 그 극치로서 배치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창조된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만물은 인간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모든 짐승을 부려라."(1,28)

이것이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명하시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다른 창조 이야기 안에서 발견된다. "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창세 2,15). 여기에서 우리는 만물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에 대한 명백한 긍정을 볼 수 있다. 만물은 인간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그것들을 돌볼 책임을 지고 있다. 반면에 인간은 결코 다른 인간들의 지배를 받고 거의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성서의 이야기 안에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차이를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특별한 결정으로, 즉 창조주와 구체적이고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깊이 생각하신 결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설명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은 선물이다. 이 선물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피조물과 어떤 부분을 공유하시게 된다.

이스라엘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이 유대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집회서 역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당신 자식처럼 여겨서 힘을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17,3)는 사실을 알아보고 있다.(◆계속)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계명

부활 5주일을 맞이하는 교회공동체는 그 둘째 독서로 요한묵시록 21장을 읽게 됩니다. 앞선 20장에서 묵시록의 저자는 사탄의 멸망과 생명의 책에 따른 심판이라는 어둡고 두려운 주제를 다루고는, 이제 21장부터는 마치 깊은 밤을 지나 새벽이 동터오는 듯한 밝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리고 66장에서 이 표현은 또 한번 사용됩니다: “정녕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있을 것처럼 너희 후손들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서 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묵시록이 이어받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의미하는 바는 ‘온 세상’이며,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새’ 세상이 전제로 하고 있는 ‘현(?)’ 세상은 어디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창세기의 서두에서 우리는 이사야서와 묵시록이 말하는 현 세상을 만납니다. 그 ‘현 세상’이란 바로 태초의 창조사건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그 하늘과 땅의 질서가 무너지자 이제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와 묵시록이 꿈꾸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성경의 종말신학입니다.

오늘의 독서인 묵시록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를 선포한다면, 오늘의 복음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성경을 찾아보면 의외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가 ‘사랑’의 종교임을 분명히 밝히는 신약성경의 몇 대목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그 대표적 경우입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옛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생명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옛 세상에는 옛 질서가 있었듯이, 새로운 세상에는 새 질서가 요청됩니다.

그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십니다. 이렇듯 부활 5주일을 맞이하는 공동체는 새로움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말씀들과 맞닥뜨립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희망이었고, 요한의 희망이었으며, 오늘 부활 5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신덕레 테레사	천남숙 리디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김금자 테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레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5 월
성모성월

 - ◆ 병자 영성체 : 6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 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남구역
 - ◆ 성모의 밤 : 8일(토) 특전미사 후 성전
 - 각 단체 및 개인의 꽃 봉헌과 초 봉헌이 있습니다.
 - 준비물 : 목주, 개인초, 가급적 한복착용

- 5월16일(주일), 낮미사 후 운동장
- 당일 미사 시간 임시 변경
* 아침미사 : 7시30분, 학생미사 : 없음, 낮미사 : 오전 10시
- 주최 : 사목회 ● 주관 : 대건회
- 구역별 팀구성 : 청팀-토런스 동, 서, 북구역
백팀-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구역

- 5월2일(주일) : 대학부(PACEM)에서 기금모금을 위해 맛있는 모밀국수와 튀김 판매. 모밀국수 \$3, +튀김 \$5
- 5월9일(어머니날 주일) : 소공동체(김밥/떡 \$4)

- 4 -

공지사항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85(5월30일까지), \$195(5월30일 마감이후)
- 참고 웹사이트 :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 주일학교 *문의 : 강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주일학교 건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건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건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25511 Eshelman Av. Lomita)
- 건진성사자와 대부모는 위 3일일정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 첫영성체 예식

- 일시 : 6월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중
- 첫 고해성사/세례 및 리허설 : 6월5일(토) 오후 3시45분
- 대상 : 주일학교 2학년~6학년, 첫영성체 받지 않은 어린이
- 신청서 : 편지로 우송됨 ☎강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주일학교 Summer Camp

- 일시 : 6월25일(금)-27일(일) 금요일 오후2시 성당 출발
- 장소 : Cachuma Lake (Santa Barbara)
- 대상 : 3-12학년 * 내용 :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 주거:단체 텐트
- 참가비 : \$60
- 마감일: 6월6일 * 참가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부실

남가주 소식

◆ 서양화가 김윤진 카타리나 개인전

- 일시 : 5월1일~21일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 LA)
- 카타리나 아일랜드를 주제로 한 대소작품 30여점 전시
- 김윤진 자매는 백삼위 본당 교우입니다.

◆ 제9회 남가주 M.E.친선골프대회

- 일시 : 5월18일(화) 오후 1시 티오프(등록 낮12시)
- 장소 : Moorpark Country Club ☎(803)532-2834
11800 Championship Dr. Moorpark, CA 93021
- 회비 : \$100(중식 및 석식제공)
- 시상 : 메달리스트, 장타상, 근접상, 홀인원, 부부상 등 다양
- 문의 : 이남현 박시모 ☎(213) 272-3598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후 1시
-------	-------

5월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테레사 328-0847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신덕례 테레사 494-1390	신덕례 테레사 494-1390 5/20(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테레사 378-4183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정아 리디아 213-200-9432 5/14(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대진화 : 거주지 역반으로 폐속	대진화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폐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새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체양석 콜메&에스터(323)829-5313 5/14(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오석만 사부엘 750-6007 5/14(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5/14(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영희가보라 544-1009 5/11(화) 오전 10시30분

영어권 청년회 창립

우리 아이가 안보여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먼 미국 땅에 왔다고 들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나 이런 저런 어려움을 다 겪으며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하며 이민생활을 꾸려 갑니다. 이런 정성을 드린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언제부터 안보이게 되나

개인 차이가 나지만, 고등부까지는 부모 손에 이끌려 나오다가, 대개 차를 갖게 되는, 대학생 청년시기 부터 언어, 문화, 정체성 등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평생을 살아가며 인생을 지켜줄 신앙심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과 동시에 소속감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천주교 신앙을 가진 한인 청년들 간의 결혼이 바람직한데, 청년들 간에 만날 기회가 없으니,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교회의 주인공은 2세대인데, 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며 손자 때인 3세에 내려가면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영어권 아이들은 왜 교회에 안나오나

언어문제와 함께, 교회 내에 자기네들과 같은 동질성을 가진 영어권 청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여야 하나

교회 내에 청년들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장을 마련해 주고 지원하여 주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모이게 할 수가 있나

청년들의 모임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있어 모인 다음, 서로 친해진후, 성서 공부를 통하여 교회 내에 소속감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먹고,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기뻐하며 모이게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 (자녀들에게 아래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1. Frisbee football Game ; 여자들도 참여 할 수 있는 재미 있는 게임입니다.

청팀 홍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한 후, 진 팀은 1인당 \$2, 이긴 팀은 1인당 \$1 내어 불우이웃을 돕게 됩니다.

\$1로 도울 수 있는 것은 ...

* 10 billion people in the world can survive with \$1 per a day

* North korean kids can survive 1 week with \$1

* 70,000,000 kids in the world can not be educated - we can provide one month education with \$1.

2. 점심 ; 샌드위치, 스낵, 드링크 무료제공

3. Sharing ; 5인 1조로 둥그렇게 앉아, 자기소개와 성서 나누기를 합니다.

4. 마칩 기도 ; 율회 악수를 통하여 친교를 나눕니다.

* 이상의 프로그램은 Pilot test 를 거쳐 성과를 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나

공원보다 비교적 안전한 운동장을 갖고 있는 성당은 21개 성당 중, 백삼위 성당뿐입니다. 우선, 백삼위 성당 내에 영어권 청년회를 만든 뒤, 대기하고 있는 타 성당의 영어권 청년들과 지속적인 친교를 갖게 됩니다.

▶이제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5월 23일 (일) 11시 30분에 백삼위 성당 운동장에 영어권 자녀(30세 정도 미만의 미혼청년)를 잘 설득하셔서 운동복장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운동경기를 위하여 적어도 처음부터 22명 정도는 있어야 하며,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된다는 마음자세로 자녀를 꼭 보내 주셔야 합니다.

* 30세 정도 이상은 추후 모임을 추진하려 합니다.

▶어디로 연락하여야 하나

자녀분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jin7choi@yahoo.com 으로 보내 주시면, 영어권청년봉사자들이 직접 연락을 하여 친밀한 유대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최진수 에우세비오

<청소년분과위원장 ☎310-738-0230>